

오늘의 계시판

19일
행사
I가족 I광주콘서트=오
후 7시30분 광주 연주체육관. 독
거노인이게 김치 1.7t, TV 50대 전달. 꿈·희망·사
람을 주제로 밤 10시까지, 삼성전자 임직원 등 1
만여명 참석 예정.
▲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선수단 결단식=오
전 10시30분 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.
▲차세대 전자금융산업 육성전략 세미나=오
후 2시 광주시청 중회의실. '미래 전자금융산업
Hub를 향한 도전'이라는 주제로, 이경수 KTF 상
무(미래 전자금융산업 Hub를 향한 도전)·이상복
LG CNS상무(교통카드(전자화폐)의 활성화 방
안)·이기환 IC카드연구개발센터장(전자금융산업
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)·유연영 광주
전략산업기획단장(광주시의 차세대 전자금융산

I가족 I광주콘서트 오후 7시30분 광주 연주체육관

업 육성계획) 등이 주제 발표.
▲역대 광주 서구청장 초청 간담회=오전 11시
구청 상황실.
(20일)
▲대통령배 2006 전국 씨름왕 전남도 선발전대회
=오전 10시 완도군 농어민 실내체육관. 9개 부문
(초·중·고·여자 학생부·여자 일반부·일반 청년·
일반 장년·대학부)에서 475명이 겨룸. 22일까지.
▲제 8기 광주문화아카데미=오후 3시 광주시
북구 향토문화센터 2층 공연장. 이혜준 공주대
사학과 교수가 '지역 문화자산의 활용'에 대해 강
연.
▲제 11회 광주시 남구 연합회장이 게이트볼대
회=오전 10시20분 광주시 게이트볼 전천후구장.
▲차지구 부구청장 회의=오후 4시 광주시청
중회의실.

공연

▲가을맞이 가곡의 밤=20일
(수) 오후 7시 광주문예극장 소
극장.
▲제 8회 광주시 119소방 동요경연대회=20일
(수) 오전 9시 (재)5·18기념재단 민주홀.
▲제 7회 순천 청소년 연극제=20일(수) 오전
10시 순천문화회관 대극장. 중등(4개)·고등(4개)
등 8개팀이 참여. 22일까지.
▲조선대 미술학부 졸업전=
27일까지 조선대미술관.
▲정일 개인전=28일까지 일
곡갤러리.
▲천연 염색 규방 공예전=20일까지 상계갤러
리.
▲아트페어=27일까지 메트로갤러리.
▲신세계미술제 수상작가 초대전 '강현덕전'=

19일까지 광주 신세계갤러리.
▲우리지역업체 우수제품 전시회전=21일까지
광주 북구청갤러리.
▲광주비엔날레 기념 '손아유전'=12월 31일까
지 광주시립미술관 분관 2층.
▲2006년 세계농아인 미술교류전=20일까지
국제농아인미술협회.
▲광주비엔날레 특별전 '미술 오케스트라'=10
월 25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분관 1층.
▲타향속에 삶과예술=11월 14일까지 의재미
술관.

역사속의 오늘

▲프랑스 철학자 콩트 태어남(1890)
▲국제통신조약 가입(1950)
▲한국과 프랑스, 아업협정 체결(1980)
▲문화재관리국, 신안해저에서 청자 등 유물 2
천500여점 인양 발표(1981)
▲북핵 6자회담 전격 타결, 北 核계획 포기(베
이징) (2005)

뉴스퀴즈

30.올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레딩 FC
로 이적한 이 선수가 5경기만에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을
터트렸습니다.
이 선수는 지난 16일(한국시간) 밤 영국 셰필드 브래몰
레인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2006-2007 프리미어리그 5
차전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원정경기에서 오른쪽 윙 포워드
로 선발 출전해 1-0으로 이기고 있던 전반 25분 강력한
원발 슈팅으로 결승골을 넣었습니다.
꼭 필요할 때 한 방을 터뜨려 '스나이퍼'라는 별명이 붙
은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.
① 설기현 ② 이천수 ③ 김남일 ④ 정조국

참여 방법

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
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, 1위 삼성전자 고급
진공정수기 1대,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
드립니다. (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)

보내실 곳

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-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
매체부 쿼터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-711

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9일(월 7월 27일辛亥)

Table with 2 columns: Animal sign (子, 丑, 寅, 卯, 辰, 巳, 午, 未, 申, 酉, 戌, 亥) and corresponding fortune text.

오늘의 유머

애완견들의 대화

개 두마리가 동물병원 대기실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.
검정개가 침울한 표정으로 짖었다.
“내 인생은 끝났어. 옆집 암개를 주인 허락없이 건드
려서 임신을 시켰다가 뿔뿔이 나뉘어. 주인꺼리 만나서 합
의했는데 나를 거세시키기로 했다는 거야” 근데 너는
왜 왔니?
흰 개가 피곤한 표정으로 짖었다. “응... 어제 우리 여
주인이 목욕을 하려고 발가벗고 욕조에 물을 받러다구.
근데 뒤에서 보니까 내 마누라하고 비슷하잖아 그래서
뒹쳤지”
검정개가 놀라서 짖었다.
“오 마이 개! 너 정말 정신 나갔구나?”
그래서 안락사 시킨다는 거야? 거세 시킨다는 거
야?”
흰 개가 멍한 표정으로 짖었다.
“발톱 다듬고 오려!”

복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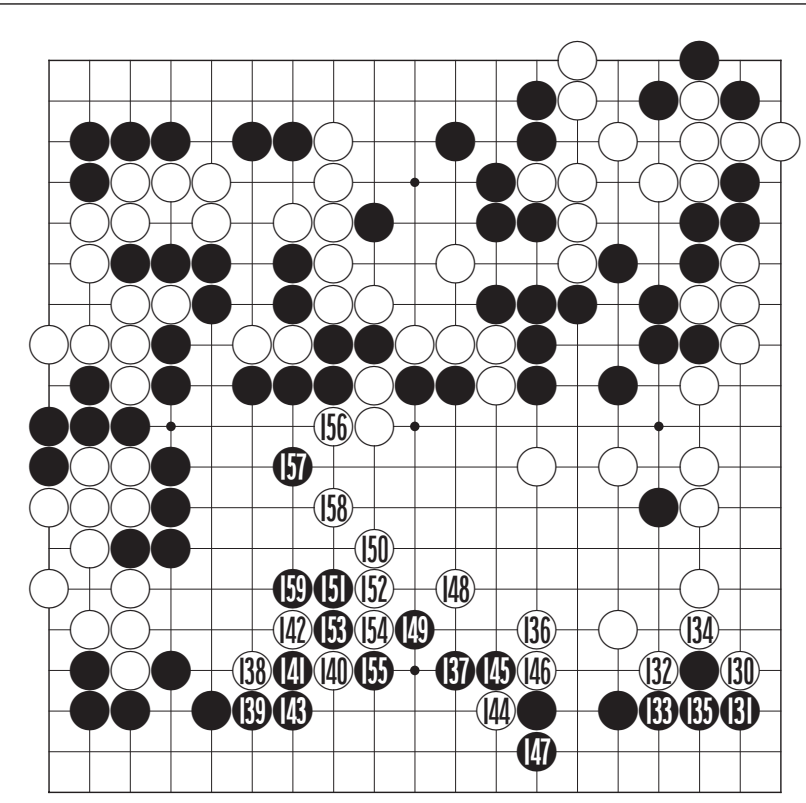
설거지를 하는 아내에게 남편이 다가가 엉덩이를 톡톡 치며 말했다.
“여보, 당신의 여기가 암팍이었던 종았을 텐데, 그러면 우린 계란을 내다
가 팔수 있을 테고 암팍을 더이상 기르지 않아도 될것 아니냐?”
남편은 또 아내 가슴을 톡톡 치며 “당신 가슴에서 우유가 나온다면 얼마나
좋을까. 우유를 얼마든지 팔수도 있고 더이상 암소 따위는 기르지 않아도 될
텐데 말아야.”
아내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남편 바지 지퍼부위를 톡톡 치며 말했다. “이곳
이 계속 서 있을 수만 있다면 당신 친구들은 더이상 필요 없을텐데!”

간 큰 남편

- 1. 아내가 연속극을 보는데 스포츠 뉴스 본다고 채널을 함부로 돌리는 남편
2. 분가에는 갈비 한 짝, 처가에는 참치 선물 한 상자를 사가는 남편
3. 아이 하나 더 낳자고 조르는 남편
4. 피곤하다는 이유로 밤일을 미루면서 밤새도록 야한 비디오 테이프만 감상
하는 남편
5. 돈을 달라는 아내에게 어디에 쓸 거냐며 꼬치꼬치 캐묻는 남편
6. 요리는 죽어도 하지 않으면서 아내가 해준 음식을 맛없다고 타박하는 남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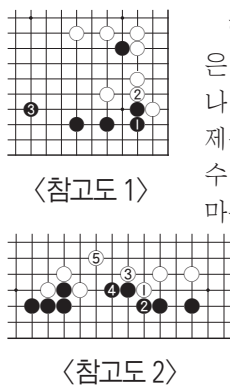
▲자구 그렇게 놀개야? <유니텔톡>



제15회 光日盃 光州전남직계비특대회

사라진 역전 기회 4회전 제7보(130~159)

白 이상의 5단 <광주시청A>
黑 유병수 5단 <포스코>



현재의 국면
은 흑 우세.그러
나 이정도는 언
제든지 뒤집힐
수 있는 것이 아
마추어 바둑이
다. 이 5단은
130으로 붙여 선
수로 이득
을 보려고
한다. 이때 흑 131로 막은 것이 우세
를 순간간에 날려버린 악수가 되었
다. 이 수로는 '참고도1'의 흑 1이 정
수로, 백 2로 받으면 3으로 하변을 크
게 지켜 우세를 굳힐 수 있었다.
이 5단은 138로 짚어 이것으로 역
전인가 했으나 144가 오버페이스다.
이 수로는 '참고도2'의 백 1로 붙이
고 3으로 짓힐 곳이다. 그다음 5로 지
쳐야 했다.
역전이 되었다고 생각한 순간 144
의 악수로 흑 149부터 153으로 끊는
수가 발생. 재역전이며 이후에는 신기
투처럼 모든 기회가 사라져 버렸다.
<오규철 9단·본보 바둑해설위원>

바둑소식

영남일보 첫 승 신고, 꼴찌 탈출

KB국민은행 2006한국바둑리그 10
라운드 2경기를 마친 영남일보가 첫 승
을 올리고 꼴찌 탈출에 성공했다.
전날 2연승으로 비교적 가벼운 마음
으로 대국에 나선 이희성 7단과 윤성현
9단은 지난 17일 4위인 신성건설의 김
승준·안조영 9단을 각각 물리치고 라
운드 전적 4-0으로 귀중한 1승을 챙겼
다. 이날 승리로 영남일보는 1승5무4패
승점 8점으로 파크랜드(7무2패)를 제
치고 7위에 올라섰다.
한편 이번 주말 광주를 연고로 하는
3위 KIXX(4승4무1패)는 6위 제일화재
(1승6무2패)와 '광주투어'를 가질 예정
이다.
/윤영기기자 penfoot@kwangju.co.kr

굿모닝 잉글리쉬 <736> 오하이오 니혼고 <736> 니하오 풍구워 <454> 한자 이야기 <354>

English section: Please say hello to Helen for me. 나 대신에 헬렌에게 안부를 전해다오. A: Are you free next Monday evening? B: Let me check my schedule. A: I'm going to have a party for Helen. B: I'll be out of town that day. I'm sorry. I wish I could go to your party. Please say hello to Helen for me.

Japanese section: 日本語の勉強はうまくいってますか? 일본어 공부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? A: 日本語の勉強(べんきょう)はうまくいってますか? B: ええ、會話(かいわ)なんかは、だんだんうまくなってきたと 思うんですが、漢字(かんじ)のほうが...

Chinese section: 这里有没有毛病? 여기 흠이 있어요. A: 有没有毛病? 这里有没有毛病. B: 没有毛病. C: 这个还行. D: 这个有点毛病. E: 这个有点毛病. F: 这个有点毛病. G: 这个有点毛病.

한자 이야기 <354> 先史(선사) 먼저 선, 역사사 선(先)은 사람의 머리 위에 발이 있는 모양으로, 남들 보다 앞서서 하는 것을 의미한다. 사(史)는 중(中)+우(又; 손), 손에 수를 세는 중(中)이라는 것발을 들고 사무를 관장하는 모습에서 천체의 운행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사람, 역사적 기록을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.